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22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4.02

미션
MISSION

사랑으로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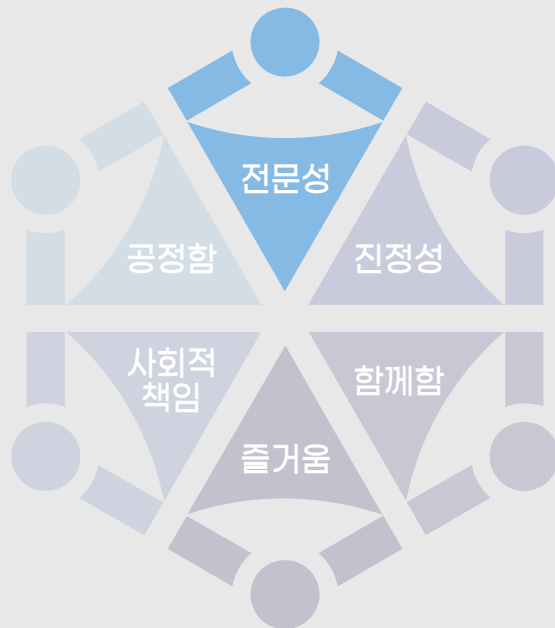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통합센터 새로비움 1기

자가면역질환

정양수 원장님 특강 (02.19)



면역과민반응(ALLERGY)이란? 면역과민반응이란 항원에 대한 항체의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을 뜻하며, 이 결과 세포나 조직이 손상되고 질환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급성알러지와는 달리 숨은 알러지는 주로 음식물에 의해 반응하며, 음식섭취 후 2시간~72시간 후 반응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든 계층에 발생하며 쉽게 자각하기 어려워 혈액으로만 정확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급성이 히스타민 반응이라면 숨은 알러지는 염증성 반응이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양수 원장님은 자가면역질환의 정의에서부터 원인, 치료, 식이에 대한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며, 특히 제거식이요법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여기 참석한 통합센터 새로비움 1기 참석자는 사전에 90종 알러지 검사를 실시하였고, 각자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미리 파악한 후, 정양수 원장님에 제시한 제거식이요법 실천법으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유동식 제조법을 함께 배워가며 앞으로 3주간의 실천을 위해 함께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팀별로 2/26일부터(개별 상황에 따라 3월초부터) 3주간 디톡스 비움을 시작하였고, 3월중에는 3주 프로젝트를 마치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2024 승진자 타운홀 미팅 (02.23)

3월 도약식에 앞서 올해 승진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임명장을 전달하고, 마음을 나누는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원장님의 응원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심전심] 우리의 승진을 함께 마음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자기가 작성한 자기평가서를 다시 읽으며 직책의 책임과 권한, 의무 등을 리마인드 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 있을 도약식 행사 시간을 효율적으로 가지기 위해 사전에 주머 14명과 부파트장 3명에 대한 임명장을 미리 수여하였고, 축하카드와 책도 증정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병원에서의 승진이 단순한 직책의 변화가 아닌, 공정하고 가치 있으며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자부심을 느끼며 사명감을 나누고, 승진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 순간을 통해, 새로운 리더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팀과 센터, 그리고 병원 전체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승진자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더욱 빛나는 성취를 기대합니다.

모두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운기념전환홈 개소식 (02.23)



작년 하반기에 병원에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해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후원인께서는 우리들이 해가는 모습들을 보시고 정말 감동하셨고, 진정성 있는 모습속에서 아깝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큰 금액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후원금을 가지고 '노운기념 전환홈'을 만들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노운기념 전환홈'은 중도 중증장애인의 준비된 일상(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중도장애인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퇴원 준비과정을 점검하고 장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와 사회적 어려움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이 곳에서 일상(사회) 복귀 이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환코치와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하고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후원인분을 모시고 식순에 따라 개소식을 선언하고, 내외빈 소개, 전환홈 소개 대표축사 및 외부인사 축하말씀을 전했으며, 현판 제막식과 기념사진을 끝내고 오랜시간 다과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노운기념 전환홈'은 중도 중증장애인의 준비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퇴원에서 일상복귀까지의 전환시스템을 구축하며, 사회복귀 지원 전문 장애인활동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공간으로 이어져, 의료 재활을 넘어 지역사회 재활을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노운(鷲雲) 박무영(朴武榮)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과 인품이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간절한 마음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실천은 함께하는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이곳에서
노운(鷲雲)의 마음을
이어갑니다.

노운(鷲雲) 박무영(朴武榮) 교수약력

1926. 42 경상남도 진주출생

1958. 일본 도호쿠 대학 생물학과 이학석사

연세대 이공대 생물학과 조교수

1965. 미국 Oregon State University 박사

1965. 미국 Wisconsin Miller Brewing 산업연구원

1972~1991. KAIST 초대 생물공학과 교수

1985. 일본 오사카대학 발효공학과 초빙교수

1987. 미국 Westman Foods 기술고문

2007. T 명예교수 / 2003.5.2. 명예

휠체어스쿨 (02.07 / 02.21)

박OO의 5명의 참여자와 내 몸에 맞는 휠체어 선택 방법과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조정이 가능한 앞바퀴 타이어교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휠체어를 효율적으로 미는 방법 올바른 손의 위치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드렸고 휠체어를 타고 문열기 쟁반들고 이동하기 일상생활에서 할 때 쉽게 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밖으로한걸음씩 (02.01 / 02.02 / 02.05)

박OO은 앞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1월 학과2시간 기능8시간 교육이수하고 기능시험 합격하여 도로주행 10시간을 교육이수이후 도로주행 시험 응시하여 합격을 하였습니다.

박OO은 도로주행 전날 긴장을 많이 하여 잠도 잘못자고 걱정을 했으나 시험 칠때는 긴장하지 않고 배운대로 운전을 하여 무난하게 합격했습니다.





스포츠체험 (02.23)

참여자분들은 경기용 휠체어로 트랜스퍼를 하고 나서 가벼운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며 휠체어러키의 기본 기술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지그재그 밀기, 패스하기, 밀면서 공 집어 올리기 등을 하면서 휠체어러키의 기본 규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기본 기술을 익힌 후 선수들과 함께 릴레이 경주와 미니 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참여자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넓은 체육관에서 휠체어를 빠르게 밀면서 속도도 느끼며 직접 경기를 뛰어 봄으로써 참여자분들께 긍정적 에너지와 자신감을 높이는데 휠체어러키 체험은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서야!

문예창작과를 나온 ○○○님은 졸업 후 부산 문화예술재단 '청년사업' 중 중소기업 홍보 영상 디자인 사업에 공모하였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어 리더로서 사업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지만 대인관계에 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게 되었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저산소성뇌손상 판정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본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참여자분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소아마비 1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 주간병을 하며 주 보호자로 활동하였고, 참여자의 장애를 수용하며 정서적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참여자분의 첫인상은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이셨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과 치료사 속에서도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9층 소망 정원에서 텃밭을 가꾸기도 하였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작업치료 시간에 패드를 활용하여 그림도 그렸습니다.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이어 사회사업팀 프로그램 '도자기 빛다.'에도 참여하여 돌고래 그림을 그렸고, 소망정원 꾸미기에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비급여에도 꺾이지 않았던 재활치료!

어머님과 지속적인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고, 조심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민간보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되는 재활치료비에 부담을 호소하셨습니다. 참여자분은 꾸준한 재활치료로 신체 기능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지저하로 인해 사고력, 사회성을 요하는 높은 레벨의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인지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였지만 비급여치료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입원 치료를 유지하기 어려워 낮병동을 선택하여 재활치료 의지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집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의료비신청'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약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병원비 부담 없이 재활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병 6개월 시점으로 뇌병변 장애등급 신청과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뇌병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비는 반드시 기회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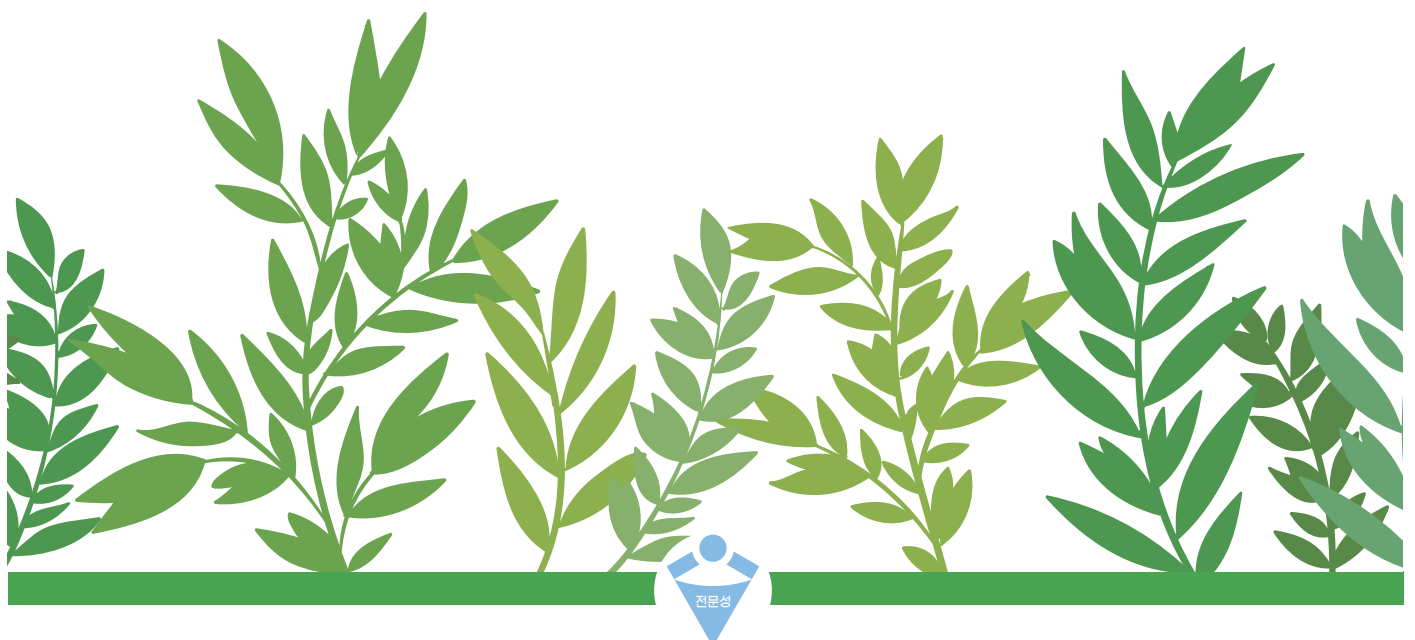
본원 낮병동을 통해 약 6개월 동안의 재활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복지기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자분은 병원과의 치료 외 사회인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재활치료를 목표로 낮병동을 참여하였습니다. 낮병동과 병행하여 '부산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일자리 구인구직 사업'에 관해 직접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낮병동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준비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보조를 받아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5일 3시간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는 근무 후 한마음스포츠센터에서 주5일 운동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주3회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운동과 재활치료, 사회복지기를 함께 진행하며 자택에서 가족들과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자 주요 사항

	대상	성별	나이	보호유형	대상질환	발병일	입원기간
참여자 사항	대상	여성	30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저산소성뇌손상	2022.10.07.	2022.12.21.~2023.02.28.(입원) 2023.03~12.31(낮병동)
	가족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형태 : 3인 가구(부부자녀가구) ■ 주보호자 : 모 					
	심리·사회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치료비 부담이 큼 					
	주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형태 : 아파트(EV O) ■ 주거환경 : 설치 불필요 					
	문제사항 및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업 복귀 불가하여 직업탐색 욕구 있음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	퇴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경로 : 자택 ■ 치료계획 : 낮병동 ■ 이동수단 : 독립보행, 대중교통 이용 가능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지원 : 빛다, 이벤트 PG 					
	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대에 ON 통합돌봄 ■ 해운대구청 일자리 지원센터 ■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2024년 2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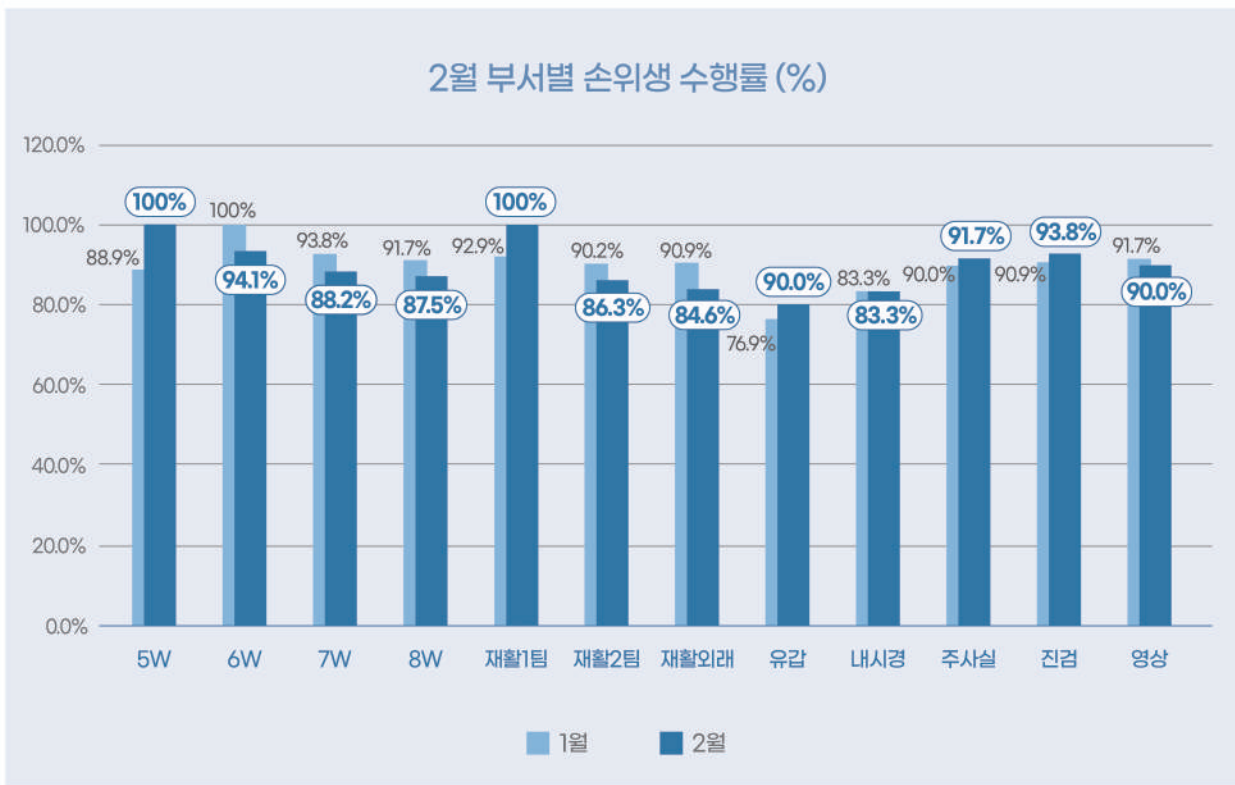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4년 02월 01일 ~ 2024년 02월 29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4년 1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67	151	90.4%	+ 0.4%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이벤트 프로그램

‘바질토마토청 만들기’ (02.29)



이번 프로그램은 입안에 확 퍼지는 향긋함이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홈메이드 음료 ‘바질토마토청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분위기를 환기 시킨 후 바질과 토마토가 가진 다양한 효능과 간단한 설명이 담긴 유인물로 바질토마토청 만드는 법을 숙지하였습니다.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미리 데친 토마토껍질을 직접 벗긴 후 열탕 소독을 거친 유리병에 설탕과 바질, 껍질을 제거한 토마토, 레몬을 곱게 담아 완성하였습니다.

토마토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 조금 손이 가고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어려웠던 만큼 완성된 모습을 보고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셨습니다.

이렇게 바질과 제철과일 토마토를 활용한 건강 홈메이드 디저트를 만들어봄으로써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시간을 통해 다시 재활치료 의지를 북돋우며 힘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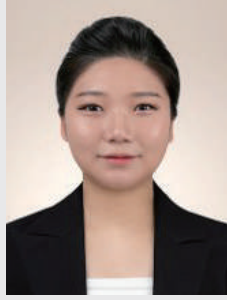


우리는 가족입니다.

2월의 신규입사자



재활간호팀(5W) 김현숙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8W) 정이수 간호사



재활간호팀(8W) 고영란 간호사



재활치료1팀 이강민 물리치료사



재활치료1팀 이현성 물리치료사



재활치료1팀 박용준 물리치료사



재활간호팀(7W) 강지원 간호사



재활치료2팀 박하령 물리치료사



재활치료2팀 성채은 물리치료사



재활치료2팀 이가현 물리치료사



재활치료2팀 정예원 물리치료사



재활치료2팀 정혜인 물리치료사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헤임당 신혜선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정방문 (02.13)

사)나눔으로행복동행은 2016년 지역사회공헌위원회로 출범하여 인식개선팀, 일상속으로팀, 사회속으로팀 3개 팀이 운영되었고, 일상속으로팀은 참여자 가정 구조 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참여자가 본원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사업에 함께하여 안전하게 사회복귀를 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신혜선님께서 본원에 동행하게 되어 기존의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사업이 ‘헤임당 신혜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치있는 한걸음, 의미 있는 길에 동행해주신 신혜선님과 함께하여 본원에서 재활치료와 훈련을 거쳐 사회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참여자에게 원래 살던 주거환경이 또 다른 장애가 되지 않게, 변화된 내 몸에 맞는 집에서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에는 백선미 병원장님, 사)나행동 이재욱 사무처장, 전환홈 신법기 전환코치, 재활 2팀 허두원 팀원, 사회사업팀 이지혜 부팀장, 이하늘 팀원, 뉴미디어팀 박현기 주무, 인테리어 대표가 함께 헤임당 신혜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1호 케이스로 선정된 신OO님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점검하였습니다.

신OO 참여자는 현재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호자 도움 하에 이동이 가능하신 분으로 자택에서 안전하게 이동 및 생활할 수 있도록 자택 내 이동노선을 파악하였으며 침실, 화장실 입구, 화장실 내부에 이르기까지 곳곳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평가하였습니다.

가정방문 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곳은 좁은 현관 입구와 화장실이었습니다. 현관은 참여자의 하지 기능상 힘빠짐 증상 있어 낙상 예방을 위해 슬라이드 문 수리와 신발장을 제거하여 공간 확보 후 안전바 설치가 필요했고 그다음,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단차가 29cm로 현재 벽돌을 쌓아 임의로 계단 모양을 만들어 이용 중으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2단 계단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그 외 화장실 내 세면대 및 안전바 설치 등 최종 회의를 통해 신OO 참여자의 주거환경개선 계획과 목표를 세웠으며 앞으로의 계획 공유 및 참여자의 자립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참여자와 보호자께서는 헤임당 신혜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가정복귀에 대한 막연함과 부담감을 해소하고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퇴원 전 공사 완료 예정으로, 본원과 함께 주변 환경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고 계시는 신OO님의 ‘준비된 퇴원’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OO 참여자의 가정복귀 및 사회복귀를 위해 앞장서주신 백선미 병원장님, 신혜선님, 사)나행동 이재욱 처장님 외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하며 참여자의 앞날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원봉사자 설날 감사선물 전달식 (02.08)

지난 한 해 동안 입원치료 중인 참여자분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를 맡아 나눔에 동행해주신 이미용 자원봉사자, 러브뮤직 자원봉사자에게 설날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설날 감사선물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위치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재능나눔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본원과의 의미 있는 동행,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 전했으며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12주년이 지나고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 올해도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하시는 일 건승하시고 건강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미용 프로그램 (02.20 / 02.23 / 02.27)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달 이미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자분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83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순간포'차' 세상에 이런 일도

감정의 완전한 소멸은 헤어짐으로써가 아닌 다시 만남으로써 이루어진다.

“구석구석 번지지 않은 데가 없어요.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네요. 일시적 방법이 있긴 하지만 6개월도 가지 못할꺼예요.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된 거 같아요.”

그가 손에서 얼룩이 묻은 장갑을 벗으며 얘기했다. 듣고 있던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지만 선택지는 정해졌다.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한 달 전 4박5일로 함께 강원도 갔던 때가 생각났다. 그것이 마지막 여행일 줄이야. 이 소식을 아내에게 전해야 했다. 묵직한 마음으로 차에 시동을 켰다. 떨리듯 오른손은 사이드브레이크를 내리고, 왼손으로 핸들을 돌린다. 우측 발을 엑셀에 옮겨놓고 서서히 밟는다. 무선 이어폰을 한 쪽 귀에 꽂고 전화를 누른다. 한 번의 연결음이 울리더니 이내 전화를 받는다.

“여보 우리 차 폐차해야 될 거 같아.”

‘컬러 배스 효과(color bath effect)’다. 한 가지 색깔에 집중하면 그 색 물건만 눈에 띄는 현상이다. 무언가를 의식하면 그것만 눈에 보이게 마련이다. 관심이 생기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_강원국《강원국의 글쓰기》(메디치)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것들이 관심을 갖는 순간 눈에 띄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런 현상을 바로 컬러 배스 효과라고 한다. 집중과 몰입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폐차 선고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중고차를 알아봤다. 특정 모델을 정해놓고 가격과 금액을 지정하고 검색했다. 그랬더니 약 3주간 지나가는 도로에 그 차만 눈에 띈다. 수많은 차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차 밖에 보이지 않는 경험을 했다. 21일간 비교와의 전쟁을 치른 후에야 그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집에는 초등학교 두 아들이 있다.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간다. 사는 곳이 부산이라 가까운 경남일대를 누비고 다닌다. 연식이 꽤나 오래된 SUV 7인승 차는 우리에게 4년 전 찾아왔다. 그때도 5인승 RV 차량이 갑자기 고장 나서 급히 구매했던 차다. 우리는 차에게 이름을 붙여줬다. ‘렌토~’ 4년 전 우리 품에 와서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 오래된 연식 때문에 늘 놀러 갔다 와서 주차장에서 우리가족은 박수를 쳤다. 안전하게 다녀와줘서 고맙다고. 마치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렌토’에게 말을 건네면 핸들을 쓰다듬어줬다. 엿그제 이 녀석의 마지막 사진을 찍었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마지막 사진을 폰 속에 담고 시동을 켰다. 아파트 베란다 옆으로 아내와 방학한 아이들이 바라보며 손을 흔든다. 차를 베란다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옮겼다. 아내와 아이들과도 이별을 할 시간이다. ‘안녕’ ‘잘 가’ 무뚝뚝한 사내 녀석들의 인사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제 서서히 앞으로 차를 움직인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매매단지 쪽으로 함께 동행한다. 처음에 그랬듯이 마지막도 나와 함께이다. 듣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속마음을 마음껏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속 말을 끄집어내어 본다. ‘잘 가’ ‘고마워’ 무뚝뚝한 아빠의 인사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

내 경험에 의하면 감정의 완전한 소멸은 헤어짐으로써가 아닌 다시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더라. _이석원《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달 출판사)

저자 이석원의 말처럼 감정의 완전한 소멸은 만남으로써 이루어졌다. ‘컬러 배스 효과’에 벗어나던 날 우리는 새 식구를 맞이했다. 앞서 주인이 누군지는 모른다. 그저 우리 식구가 된 걸 축하하며 나는 이 녀석을 데리고 셀프세차장으로 갔다. 시원한 물줄기를 뿌려준다. 한여름 밤에 샤워를 해서 기분이 좋아 보인다. 내부에 있던 매트도 깨끗이 세척한다. 의자며 차량 내부 곳곳을 물티슈로 닦아준다. 그리고 잊지 않고 말을 건넨다. ‘우리 식구가 된 걸 축하해. 앞으로 이곳저곳 안전하게 잘 댕겨줘~’ 이 차가 언제까지 우리식구와 함께 할지는 아직 모른다. 그저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할 뿐이다.

그렇게 우리만의 주말 나들이는 울주(울산) 당일치기와 함께 다시 시작되었다.

잘 부탁해~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